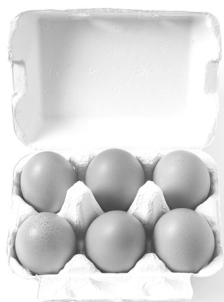


## 2024년 산란계 수급 동향과 전망

# 계란 산지 가격, 예년과 비슷하게 등락 폭 크지 않을 것



김 지 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팀 연구원

## 산란계 사육 동향

통계청 가축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3년 9월 1일 기준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3%, 5.7% 증가한 7,613만 마리였다. 이 중 계란 생산에 가담하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5%, 2.2% 증가한 5,429만 마리였으며, 6개월 미만 마릿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14.3% 증가한 2,183만 마리였다.

산란계 전체 사육 마릿수는 '22/23년 HPAI 발생 직후인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9월까지의 연평균 산란계 전체 사육 마릿수는 7,500만 마리로 전년(7,339만 마리) 및 평년(7,157만 마리) 대비 각각 2.2%, 4.8% 증가했다. 이는 '22/23년 HPAI 발생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으며, 산란 종계 농장의 피해 없이 실용계 입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사육 마릿수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산란계 실용계 입식 및 성계 도태 동향

2023년 1~11월 누적 산란 실용계 입식 마릿수는 4,787만 마리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으

표 1. 산란계 사육 마릿수 동향

단위 : 천 마리

구 분	'22.3	6	9	12	'23.3	6	9
전체	70,428	73,073	75,863	74,188	73,684	75,190	76,126
3개월 미만	10,812	11,384	12,909	10,003	10,602	11,345	12,400
3~6개월 미만	9,463	10,006	9,963	10,061	8,274	8,896	9,433
6개월 이상	50,153	51,682	52,991	54,124	54,808	54,948	54,293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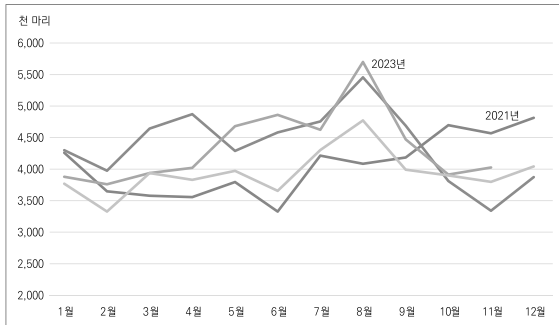
나 평년 대비 10.4% 증가하였다. 지난해 하반기 산란 종계 입식 증가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산란 실용계 입식은 전년과 평년 대비 증가하였다. 올해 11월까지 월평균 입식 마릿수는 435만 마리 내외였으며, 특히 8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70만 마리가 입식되었다.

1~11월 누적 성계 도태 마릿수는 3,471만 마리로 전년 및 평년 대비 1.1%, 7.9% 증가하였다. 올해 11월까지 월평균 도태 마릿수는 315만 마리 내외였으며, 전년 대비 늦은 추석으로 9월 도태 물량은 감소하였으나, 추석 이후 도태 물량은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 계란 생산 및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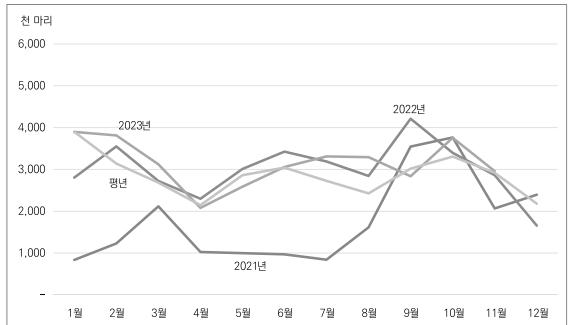
2023년 9월 1일 기준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마릿수 증가로 전년 및 평년 대비 0.8%, 3.4% 증가한 4,612만 개였다. 소모성 질병(IB, 저병원성 AI 등), 폭염 등으로 인한 신계군의 생산성 하락으로 계란 생산량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계란 산지가격은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이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추석 수요 증가로 인해 9월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11월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2.8%, 34.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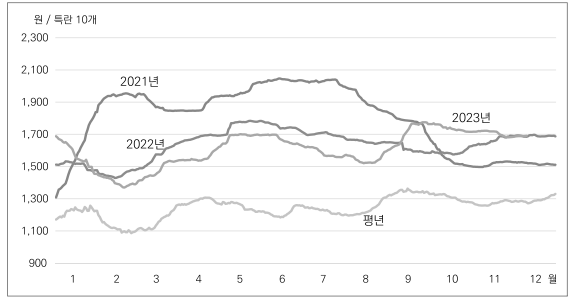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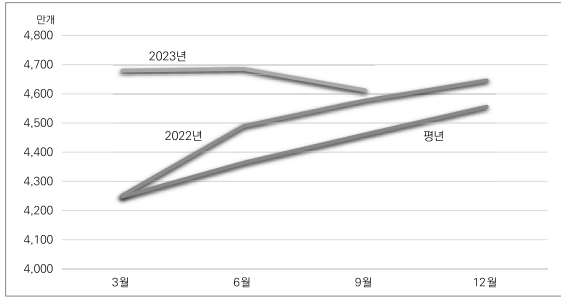


자료 : 대한양계협회, 농림축산식품부

<도표1> 산란 실용계 입식 동향



<도표2> 산란 성계 도태 동향



주 : 농협중앙회의 가격 조사 중단으로 2019~2022년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  
 자료 : 통계청,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도표3〉 일평균 계란 생산 동향

(만 개)

한 1,707원(특란10개)이었으며, 현재까지 12월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1,689원으로 전월 및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수준이다.

〈도표4〉 계란 산지가격 동향

(원/특란 10개)

4,650만 개로 추정된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의 일평균 계란 생산량 또한 사육 마릿수 증가와 생산성 회복으로 전년과 평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란 산지가격은 HPAI에 대비한 유통업체의 재고 확보 수요와 설 명절 수요로 인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 설 명절 이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이번 겨울 HPAI 확산 정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산란계 수급 전망

올해 1~11월 산란 실용계 입식과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 도태 주령 등을 고려할 때, 12월 1일 기준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460만 마리 내외로 추정된다. 또한 올해 5월 이후 입식된 많은 수의 산란 실용계를 중심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산란 종계 입식 대비 종계 도태 마릿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후 실용계 입식 및 사육 마릿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1일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생산에 가담하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한

이번 2023/2024년 HPAI 첫 발생(23.12.4.)은 전년(22.10.17.)보다 늦은 시기에 발생하였으며, 12월 11일 현재까지 산란계 농장 발생은 2건, 발생 농가에서 약 2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범위의 탄력적 운영과 질병 관리등급제 시행 등 방역조치로 계란 산지가격 등락폭은 예년과 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계**